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묵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마르 7,32-35)

〈귀 먹고 말 더듬는 이를 고치시는 예수님〉, 제롬 나달, 1595년, 동판화

[제1독서]..... 이사 35,4-7나

[제2독서]..... 야고 2,1-5

[화답송] 시편 146(145),6나-7.8-9나,9나나-10나
(◎ 1나)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복음] 마르 7,31-37

- [성가 안내]
- 입당성가: [28] 불의가 세상을 덮쳐도
 - 봉헌성가: [210] 나의 생명 드리니
 - 성체성가: [502]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181] 신비로운 몸과 피
 - 파견성가: [286] 순교자의 믿음

예수님께서서는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신다.

그때에 ³¹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대를 가로질러 갈릴래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³²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³³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³⁴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³⁵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³⁶ 예수님께서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³⁷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Again Jesus left the district of Tyre
 and went by way of Sidon to the Sea of Galilee,
 into the district of the Decapolis.
 And people brought to him a deaf man who had a speech impediment
 and begged him to lay his hand on him.
 He took him off by himself away from the crowd.
 He put his finger into the man's ears
 and, spitting, touched his tongue;
 then he looked up to heaven and groaned, and said to him,
 “Ephphatha!”— that is, “Be opened!”—
 And immediately the man's ears were opened,
 his speech impediment was removed,
 and he spoke plainly.
 He ordered them not to tell anyone.
 But the more he ordered them not to,
 the more they proclaimed it.
 They were exceedingly astonished and they said,
 “He has done all things well.
 He makes the deaf hear and the mute speak.”

묵상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더듬는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시지만, 널리 알려져 사람들이 놀라워하지 않습니까?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이러한 군중의 외침은 오늘 제1독서와 연결됩니다. “그때에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자기 자신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기는 많이 알고 있고,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도취라는 굴레에 빠진 상태이지요.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해방이 주어진다면 지금까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보고 듣고 즐기게 되지 않을까요? 아울러 다른 이들의 눈과 귀를 열어 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푸신 치유 행위는 우리에게 더 넓은 것을 생각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귀를 생각하게 하지요. 하느님의 목소리, 세상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열려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주님과 이웃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정신적 귀먹음이 세상의 많은 비극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하며, 신앙적으로 귀먹은 상태에 있다면 주님께서 “에파타!” 하시며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해야 하겠습니다.

(김준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마르 7,37)

예수회를 창설한 로올라의 성 이냐시오(St. Ignatius de Loyola, 1491-1556)는 자기 동료 제롬 나달에게 선교를 위해 복음묵상을 삽화로 제작하여 배포할 것을 권고했고, 제롬 나달(Jerome Nadal, 1507-1580)은 동판화가 베르나르디노 파세리(Bernardino Passeri, c.1540-1596), 마르틴 드 보스(Martin de Vos, c.1532-1603), 안톤 비릭스(Anton Wierix, 1552-1624) 등의 도움을 받아 153개의 동판화로 『복음서 묵상 삽화(Evangelicae Historiae Imagines)』를 제작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은 화집 가운데 62번째 장면으로, 마르코 7,31-37이 그 배경이다.

이 작품은 성경에 나오는 장소에 대한 상상력이 배경으로 돋보이게 묘사되었다.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래아 호수로 돌아오셨기 때문이다.

A는 해안이 있는 티로 지역이다.

B는 시돈 지방이다.

C는 시돈 지방에 있는 사렘타 마을이다.

D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래아 호수로 돌아오는 장면이다.

E는 많은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고 있다.

F는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시고 있다.

G는 예수님께서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시고 있다.

H는 예수님께서 치유를 받은 사람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시는 장면이다.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고치시는 예수님〉, 제롬 나달

그런데 함구령을 내리시는 예수님의 발은 수난을 상징하는 맨발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서 수난하시고 죽으신 후에야 제자들에게 당신의 영광된 모습을 드러내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입으로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귀머거리고 병어리이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관한 청력을 회복하려면 수난과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려면 우리 삶에서 사랑을 되찾아야 한다.

(손용환 신부의 성경 미술관)

오직 사랑 때문에

- 순교자 성월에 -

이해인 수녀

번번이 결심을 하면서도
세속적 욕망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비열한 마음
죄를 짓고도 절절히 뉘우칠 줄 모르는
무딘 마음
민음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지 못하는
냉랭한 마음

우리의 이러한 마음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안에 피흘리며
울고 계신 님들이여

어서 산이 되어 일어나 말씀하소서
고통의 높은 산을 넘어
끝내는 목숨 바칠 수 있는 믿음만이
믿음이라고 -

어서 굽어치는 강이 되어 소리치소서
고통의 깊은 강을 건너
끝내는 죽을 수 있는 사랑만이
사랑이라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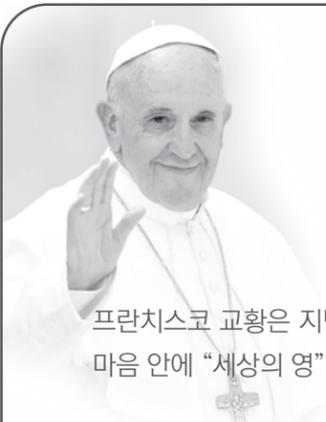
남들이 가지 않으려는
가파른 생명의 길
고독한 진리의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걸어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신 님들이여

이제 우리도 가게 하소서

어제의 환상이 아닌
오늘의 아픔의 무게
꽃처럼 고운 꿈이 아닌
피투성이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님들을 따라가게 하소서

오직 사랑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 않는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마음의 어둠을 밝히시려
날마다 흰 옷 입고 부활하는
미쁘신 님들이여
산천이 울리도록 우리를 부르소서
그리운 님들 안에 하나 되게 하소서



프란치스코 교황, “성령께 자리를 내어드리도록 양심성찰 하십시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9월 4일 화요일 산타 마르타의 집 아침미사를 봉헌하면서 인간의 마음 안에 “세상의 영”과 “하느님의 영”이 매일 서로 대치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인간의 마음은 전혀 다른 두 가지 “영” 이 대결하고 있는 “전쟁터” 와 같다. 첫 번째 영, 곧 하느님의 영은 “선행, 자선, 형제애” 를 가져오며, 다른 영, 곧 세상의 영은 “허영, 교만, 자기 만족, 험담” 을 우리에게 부추긴다.

교황의 묵상 출발점은 “사도 바오로가 코린토 교회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기 위한 길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는 제 1독서였다(1코린 2.10-16 참조). 그 길은 성령께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써 드러나는 여정이다. 사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분과 똑같은 “마음” 을 지니게 하며 (그분의) “마음” 을 이해하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다.

예수님처럼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교황은 “자신의 힘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인간은 성령의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 고 명확히 강조했다.

“생각하고 느끼며 실천하는 두 가지 양상 혹은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나를 하느님의 영으로 이끄는 영과 나를 세상의 영으로 이끄는 영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삶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는 말하자면 이 두 가지 ‘영’ 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은 우리를 선행, 자선, 형제애로 이끌며, 하느님을 경배하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며, 수많은 자선과 선행을 행하게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하느님의 영은 바로 그런 영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 곧 세상의 영은 우리를 허영, 교만, 자기만족, 험담으로 이끕니다. (하느님의 영이

이끄는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어느 성인이 말하길 우리 마음은 ‘이 두 가지 영이 싸우는 전쟁터, 전장’ 과 같다고 했습니다.”

교황은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우리는 하느님의 영에 자리를 내어드리도록 싸워야 하고” “세상의 영을 내쫓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혹을 규명하고”, (하느님의 영과) 반대되는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양심성찰” 을 매일 행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매우 단순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영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받았습니.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며 세상의 영으로부터 유혹을 받습니. 이 영적투쟁에서, 이 영의 전쟁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승리자가 돼야 합니다.”

하느님의 자녀

교황은 그날 보낸 그리스도인의 하루가 혹시 “허영” 과 “교만” 이 우세했는지, 아니면 하느님의 아드님을 본받을 수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매일 저녁 그날 보낸 하루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강론을 마무리했다.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양심성찰을 행하지 않는다면, 만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본능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동물’ 과 같습니다. 이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선물로 세례를 받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내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매일, 항상, 양심성찰을 하라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https://www.vaticannews.va>



마더 테레사, 하느님 자비를 풍성하게 나눠준 성녀 - 9월 4일 성녀 마더 테레사 시성식 2주년 기념 -

마더 테레사에게 있어 자비란 성녀가 하는 일에 흥미를 주는 “소금”이었으며, 가난과 고통에 대해 눈물 흘릴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었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마더 테레사의 시성식 미사에서 행한 강론에서 나온 말이다.

성녀 마더 테레사는 가난한 이들 중 가장 가난한 이를 섬기기로 선택했으며 거기서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드러냈다. 성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받은 은총에 따라 임종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을 어루만져줍시다. 겸손한 일을 느끼게 한다거나 겸손한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시다.” 성녀는 미소로 타인을 대하라고 자신의 생애를 통해 권고했다. 성녀가 말한 그 미소는 사랑의 시작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녀의 시성식 미사에 참여한 신자들에게 이해와 다정함이 필요한 이들과 절망에 빠진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위한 희망과 기쁨의 지평을 펼쳐나가면서 마더 테레사의 미소를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 특별히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 미소를 전해주자고 촉구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16년 9월 4일 마더 테레사를 성인품에 올렸다.

2018 동중부 한인성소대회

Korean American Day of Prayer, Vocation Conference 2018



“와서 보시오”
요한 1:39

성소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보다 깊은 신앙을 지닐 수 있도록 한인 사제와 수도자들이 한국어와 영어로 준비한 강의와 신나는 놀이에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성정 바오로 성당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SATURDAY,
OCTOBER 6, 2018

문의:
성소후원회 703-403-1185

- 2:00 - 2:15pm 등록
- 2:30 - 6:00pm 주제 발표
- 6:30 - 7:00pm 저녁 식사
- 7:30pm 토요일 저녁 미사

후원 단체:
알링턴 교구 성소국
알링턴 교구 다문화선교국
성정 바오로 성당

FEATURING:



Fr. Inhyun Paik
백인현 신부



Fr. Jaehwa Lee
이재화 신부



Fr. Christopher Bae
배용건 신부



Fr. Myungjun Bang
방명준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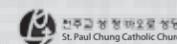
Fr. Michael Isenberg
마이클 아이젠버그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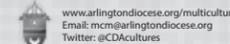
Sr. Sunghwa Park
박성화 수녀



Sr. Myunghwa Chang
장명화 수녀



전국교정청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www.arlingtondiocese.org/multicultural
Email: mcm@arlingtondiocese.org
Twitter: @CDACultures

9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일반: 아프리카의 젊은이
아프리카의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가장 심각한 가난은 사랑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엄청난 사랑을 보여준답시고 엄청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움직일 때마다 사랑을 기울이기만 한다면 우리 일은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 마더 테레사 -



23rd Sunday in Ordinary Time

September 9, 2018

Jesus Gives the Gift of Hearing

Gospel MK 7:31-37 (See the page 2)

Being able to hear is a wonderful gift from God. Imagine what it would be like if you couldn't hear anyt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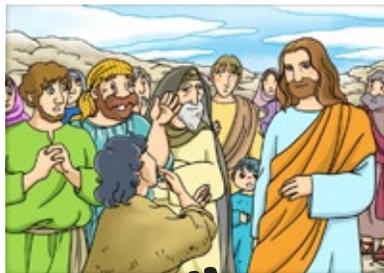
In today's Gospel reading, the people begged Jesus to heal a deaf man. What do you think it was like for that man when suddenly he could hear everything that was going on around him?

God has given us the gift of hearing to be able to talk with and listen to other people, and to appreciate the sounds of creation. We use this gift to hear God's Word at Mass and when we are being taught.

Think of all the things that we can do because we can hear: we can listen to and play music, we can sing and talk with people, we can hear birds and wind in the trees, and we can also be warned of things like barking dogs, or cars coming.

Did you ever thank God for the gift of hearing? Thank Him Today!

(www.thekidsbulletin.com)



(바오로딸 콘텐츠- 오마리아 수녀의 주일복음 그림)

Our Lady of Sorrows Feast date : September 15

On September 15th we celebrate the feast of Our Lady of Sorrows. Here are the **Seven Sorrows** of Our Lady:

1. The Prophecy of Simeon

When Jesus was a baby, Mary and Joseph presented Him in the Temple. There the wise Simeon said that Mary's soul would be pierced by sufferings. (Luke 2:34, 35)

2. The Flight into Egypt

An angel warned Joseph that King Herod was about to kill the Child Jesus, so the Holy Family fled in the night. (Matthew 2:13, 14)

3. The Loss of the Child Jesus in the temple

When He was twelve, Jesus was again presented in the Temple. This time He stayed and spoke with the priests, but His mother and Joseph did not find Him for three days. (Luke 2:43-45)

4. The Meeting of Jesus and Mary on the way of the Cross

Our Lady saw her dear Son, all beaten and torn, crowned with thorns and carrying a heavy cross.

5. Death of Jesus on the Cross

Mary would not leave His side. His suffering became her suffering. (John 19:25)

2018-2019
St. Paul Chung
Youth Choir & Orchestra

OPEN AUDITION

- WHEN** Sunday, Sep 9th, 1pm
- WHERE** Hasang Building B #7
- WHO** 7th to 12th Grade
Violin, Viola, Cello, Flute, Clarinet
- SINGER** 6th grade to 12th grade

- 1 self selected piece
- Sight reading
- Scale (up to 3 flats/3 sharp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Stephania Cha (703-725-3167)



Seven Swords Piercing the Sorrowful Heart of Mary in the Church of the Holy Cross, Salamanca, Spain / Photo by Zarateman

6. The taking down of the Body of Jesus from the Cross

Receiving the Body of Jesus into her arms. Jesus had come into the world to die for of our sins, and now His mother held His dead body. (Matthew 27:57-59)

7. The Burial of the body of Jesus

Now the Son that Mary loved so much was dead and being buried in a tomb. (John 19:40-42)

1 제79차 예비자 입교식

- 일시 : 9월 9일(일) 오전 11:30(하상관 #110)
- 문의 : 사무실 (703)968-3010
원철희 토마스 선교부장 (703)203-0332

2 주일학교 개학

- 일시 : 9월 9일(일) 오전 10시, 체육관
- 개학식 및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 문의 : 윤정보일 교감 (703)371-3589

3 단체장 회의

- 일시 : 9월 9일(일) 오전 11:30(B-3,4)

4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9월 9일(일) 오후 1시(B-3,4)

5 바오로회 월례회의

- 일시 : 9월 9일(일) 오후 1시(나눔터)
- 20대, 30대 기혼자 모임인 바오로회에 관심있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 문의 : 이성근 예레미야 (703)627-1932/
이메일 : sleeh@yahoo.com

6 복사단 학생 모집

- 대상 : 첫영성체 받은 초등학생 4학년-6학년까지
- 신청 : 9월 16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권용우 스테파노 (571)241-0333

7 성소와 성소 후원회원들을 위한 미사

- 사제와 수도 성소 그리고 성소 후원회원들을 위한 미사와 묵주기도가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 미사 : 9월 14일(금) 오후 7:30(미사 후 묵주기도)
- 문의 : 성소 후원회 (703)403-1185

8 하상회, 안나회 월례회의 및 추석잔치

- 일시 : 9월 16일(일) 오전 11:30(A-1,2,3,4)
- 행사 관계로 시니어 아파트 셔틀버스는 오후 2:30에 픽업합니다.

9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 9월 16일(일) 오전 11:40(하상관 #4,5)

10 베드로회 모임

- 일시 : 9월 16일(일) 오후 1시(B-1,2)

11 레지오 마리아 야외행사

- 일시 : 9월 23일(일) 오전 11:30(나눔터)
- 대상 : 행동단원 및 협조단원(가족동반)
- 문의 : 권 빈첸시오 (571)331-6811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9월 9일(일)	연중 제23주일	단체장 회의(오전 11:30, B-3,4), 꼬미시움 월례회의(오후 1시, B-3,4), 주일학교 개학, 주일학교 교사모임(오후 1시, 교무실), 바오로회 모임(오후 1시, 나눔터), PWV 구역 모임(오전 11:30-오후 12:50, 나눔터)
10일(월)	연중 제23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11일(화)	연중 제23주간	하상 성인학교(오전 9:30), 평일미사(오후 7:30, 성당), 성경 기도회(오후 8시), 성서 통독반(오후 7:30),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12일(수)	연중 제23주간	평일미사(오전 11시, 성당), 성서 통독반(오후 7:30, 도서실)
13일(목)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학자 기념일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14일(금)	성 십자가 현양 축일	하상 성인학교(오전 9:30), 평일미사(오후 7:30, 성당), 성소와 성소 후원회원들을 위한 미사, CLC(오후 8시), 바오로 형제회 모임(오후 8시)
15일(토)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평일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9월 16일(일)	연중 제24주일	하상회/안나회 모임(오전 11:30, A-1,2,3,4), 꾸리아 월례회의(오전 11:40, 하상관), 주일학교 임원회의(오후 1시), 베드로회(오후 1시, B-1,2), CYO Freshmen 환영식(오후 1시, 나눔터)

12 한가위 - 조상들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

- 미사 일시 : 9월 24일(월) 오후 8시
- 합동 위령미사 신청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3 시민권 취득에 관한 특별 세미나(교육부 주관)

- 일시 : 9월 23일(일) 오전 11:30(A-1,2)
- 강사 : 박춘선 콜롬바(에진회 대표)
- 내용 : 시민권 신청시 주의사항, 스폰서 법적문제, 통역 도움 등
- 문의 :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14 장례절차 세미나(연령회)

- 첫번째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한 신자들을 위해 다시 마련되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9월 30일(일) 오전 11:30(A-1,2)
- 내용 : 장례절차와 연령회의 역할
- 강사 : 홍익훈 요셉 연령회장
- 문의 : 김진호 다니엘 (703)300-5420
- 세미나 시간 관계로 이날 시니어 아파트 셔틀버스는 오후 2:30에 픽업합니다.

15 성정바오로 분당 승격 25주년 행사 기금 마련 골프대회

- 일시 : 9월 30일(일) 오후 1시
- 장소 : South Riding Golf Club
- Green Fee : \$100 (점심, 저녁 포함)
- 문의 : 허진 세바스찬 (703)376-1372

16 페어팩스 카운티 시니어 프로그램 소개 세미나(교육부/카운티)

- 일시 : 9월 10일(월) 오후 12:30 - 오후 2시(친교실)
- 대상 : 시니어 시티즌
- 내용 : 카운티 제공 무료 시니어 프로그램 서비스 소개
- 강사 : 카운티 자원봉사자
- 문의 : 김문자 마리아 (703)615-9910

17 마약성 약물 위기의 시기에 희망과 치유 찾기 (알링턴 교구 주최)

- 일시 : 9월 29일(토) 오전 9:30(9시 미사) - 오후 3시
- 장소 : Good Shepherd Catholic Church
18710 Mount Vernon Hwy, Alexandria, VA
- 강사 : Dr. Michael Home, Psy.D.(임상부장)
- 등록은 9월 26일까지 RSVP:
events@arlingtondiocese.org 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미사(오전 8시, 10시) 미사곡 변경

- 자비송 : 320 • 대영광송 : 321
- 복음 환호송 : 366 • 거룩하시도다 : 322
- 주님의 기도 : 388 •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 389
- 하느님의 어린양 : 324

2차 헌금

이번 주일은 '해의 파견 한국 선교사' 및 '북미주 한인사목 사제협의회' (K.A.P.A)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 23주간 : 2 역대 30-33, 사도 10-11

KACM TV 하이라이트

- 9월 13일(목) 오후 5:00-6:00
- 9월 14일(금) 오후 8:00-9:00
- 9월 16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가톨릭 뉴스
- 임 따라 한 평생 : 조선 최초의 천주교 마을과 이순이 유종철 동정부부의 집터 성역화를 위해 노력하는 전주교구 김환철 스테파노 신부의 이야기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8년 9월 2일(연중 제22주일)

주일헌금	\$ 7,019.00
교무금	\$ 10,475.00
교무금(크레딧카드)	\$ 4,660.00
특별헌금	\$ 100.00
2차헌금	\$ 2,881.00
합계	\$ 25,135.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NGMS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NGMS(옛 IBM) 주차장 주소
12900 Federal Systems Park Dr. Fairfax, VA 22033
• 오전 9시 타이슨스 코너 시니어 아파트 픽업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윤규희(발바라), Thomas Byrne, 정맹국(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종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박제중(요셉), 김용구(베네딕토),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다), 오인균(바오로), 신순영,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박광원(이냐시오), 안순경(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재(세실리아),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고필순(젬마), 백영수(마리아), 김정희(요셉), 전길두(베드로),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송재(가비노), 장미래(아네스)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콘지노), 이슬(루시아), 임현석(아비도), 이재운(안토니오 파도바), 손병기(펠릭스), 윤벽참(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진(엔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고미셀(미카엘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승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종연(모세), 박홍모(이냐시오), 이효천(제임스)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카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 (알베르도) 703-508-7743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아병일 (다니엘) 703-266-198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형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703-832-7155	이용희 변호사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철틀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메디케어 은퇴연금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 (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웨딩사진 전문 Soowonlee.com 703-678-9215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Oh My Dog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레드핀 소독 사업체, 가정집, 해충방제 백상윤 (마카엘) 703-881-1155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세미나로 자세한 설명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인터넷 예약 가능 www.drjohnseok.com 카카오톡: neurocare 703-581-3719	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페어팩스 부동산 www.fairfaxrealty.com Nina Park 703-303-6993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김응권 척추신경 교통사고/통증/디스크/재활치료 센터빌 703-815-2300	첼로 레슨 첼로 시작하는 어린이부터 전공생 입시레슨(생인 취미 레슨가능) Kim-Cello.com 703-472-3208	광고 접수중!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주일 저녁 6시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통해 교우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홍보하세요~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08:00 AM 10:00 AM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방명준 (라우렌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